

기획조사

부산지역 오피니언 리더가 바라보는

2026 이슈 트렌드 조사

2025. 12.



부산상공회의소

< 조사개요 >

1. 조사명

- 부산지역 오피니언 리더가 바라보는 2026 이슈 트렌드 조사

2. 조사목적

-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,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, 기업규제 강화 등 대내외 경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
- 이에, 우리나라의 2026년 경영환경 전망과 기업에 미칠 영향 및 필요 지원책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, 향후 정책과제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함

3. 조사대상

- 부산지역 주요기업, 지역 연구기관, 대학교수, 부산상의 자문위원 등 100명

4. 조사방법

- 구조화된 조사표를 통한 설문조사

5. 조사내용

- 2026년 경제/경영 트렌드 및 주요 산업 전망
- 2026년 사회 트렌드 및 정부 정책 전망

6. 조사기간

- 2025. 11. 28.(금)~12. 26.(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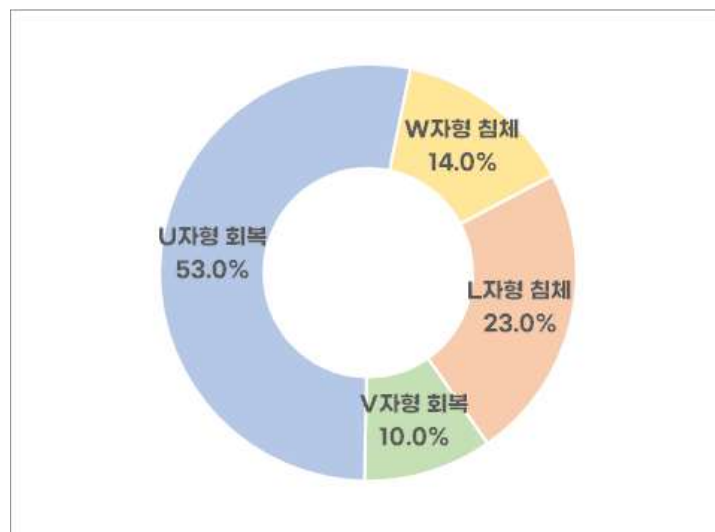
I 경제/경영 이슈 · 트렌드

가. 2026년 우리나라 경제/경영 전망

1. 대한민국 경제 전망

- 응답자 53.0%는 2026년 우리나라 경제가 ‘U자형 회복’(저속회복)을 할 것으로 전망
 - ‘L자형 침체’(장기침체)에 대한 전망도 23.0%에 달해 내수부진과 대미 수출 관세 등으로 인한 경기부진에 대한 우려도 공존함
 - 이어 ‘W자형 침체’(이중침체) 14.0%, ‘V자형 회복’(급속회복) 10.0%로 나타남

<2026년 대한민국 경제전망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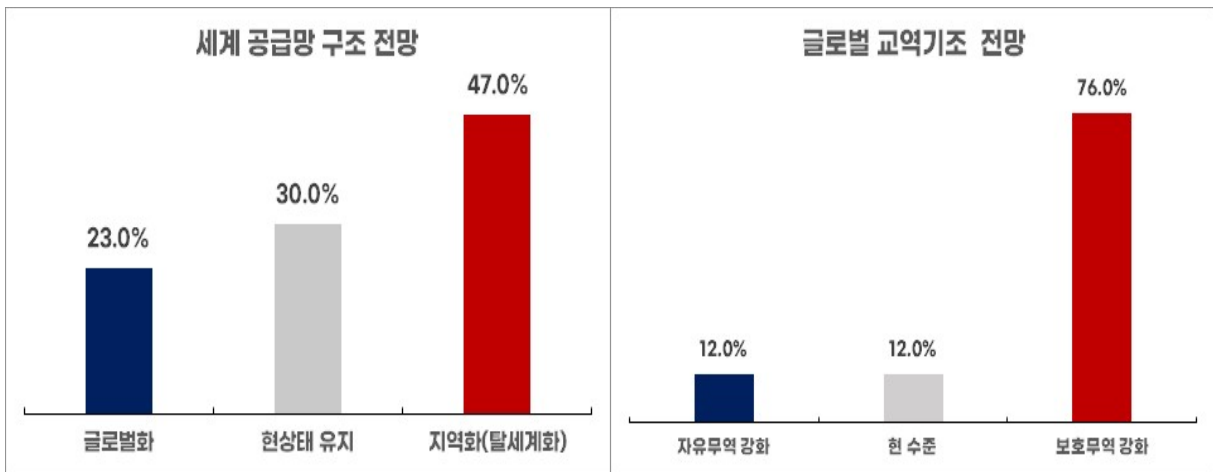


2. 세계 공급망 구조 및 글로벌 교역기조 전망

- 응답자 47.0%는 세계 공급망 구조가 ‘지역화’(탈세계화) 될 것으로 전망
 - 이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촉발한 글로벌 교역기조 변화로 보호무역이 강화 될 것으로 바라보기 때문으로 분석됨
 - 이어 ‘현상태 유지’ 30.0%, ‘글로벌화’ 23.0%의 순으로 응답

- 2026년 글로벌 교역기조에 대해서는 응답자 76.0%가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
 - 특히, 미국, 중국, EU의 전략품목 관세정책 강화와 탄소국경조정제와 같은 비관세장벽 강화로 인해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
 - 이어 ‘현상태 유지’와 ‘자유무역 강화’는 각각 12.0%으로 응답

〈세계 공급망 구조 및 글로벌 교역기조 전망〉



3. 수출환경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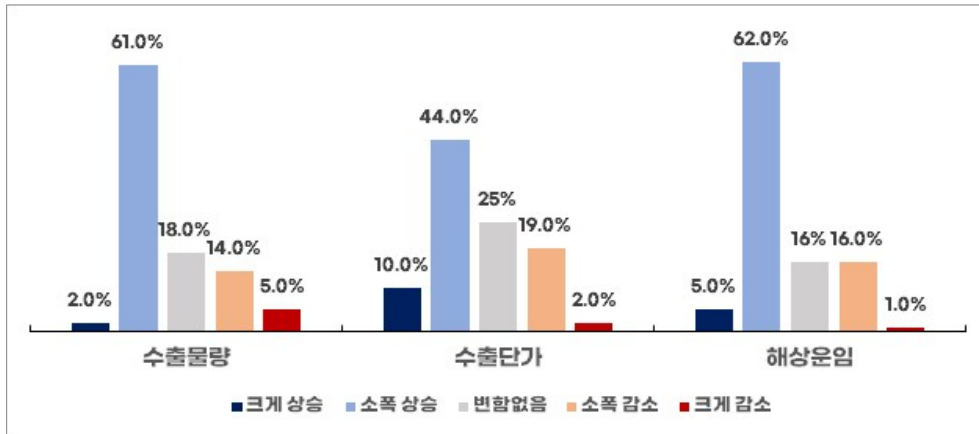
○ 수출물량 · 수출단가

- 응답 절반이상이 ‘수출물량 증가’(63.0%, 크게 상승+소폭 상승)를 전망하였으며 ‘수출물량 감소’에 대한 전망은 19.0%에 불과
- 이는, 반도체, 자동차, 조선, 방산 분야의 글로벌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
- 또한, 수출단가 증가에 대한 전망도 54.0%(크게 상승+소폭 상승)로 나타남. 이는 고환율, 고부가 제품 수출 확대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

○ 해상운임

- 응답자 67.0%(크게상승+소폭상승)는 지정학적 리스크, 환율변동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26년 해상운임 증가 전망
- 이외에도 해상운임 ‘변함없음’(16.0%) ‘감소’(17.0%, 소폭감소+매우감소)로 집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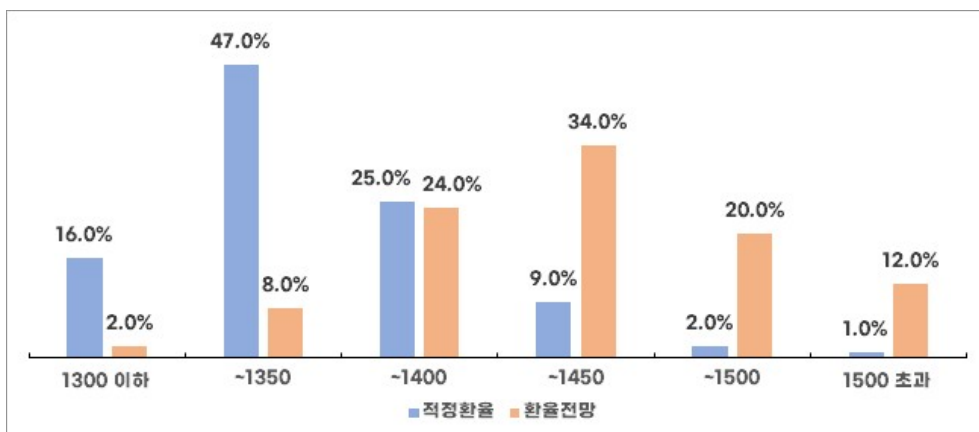
〈수출환경 전망〉



4. 적정 환율수준 및 2026년 환율 전망

- 지역 오피니언 리더 88.0%가 적정 환율수준 ‘1,400원/달러 이하’로 응답
 - 이는, 원자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 특성상 일정수준 이상의 환율은 내수시장과 기업에도 부정적이기 때문으로 분석됨
 - ‘1300원 이하’ 16.0%, ‘1350원 수준’ 47.0%, ‘1,400원 수준’ 25.0% ‘1,450원 수준’ 9.0%, ‘1,500원 수준’ 2.0%, ‘1,500원 초과’ 1.0% 로 응답
- 2026년 원/달러 환율로는 ‘1,450원 수준’(34.0%)을 가장 많이 전망
 - 응답자 34.0%는 달러 강세와 국내 재정확대 기조 등 복합요인으로 인해 2025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
 - ‘1300원 이하’ 2.0%, ‘1350원 수준’ 8.0%, ‘1,400원 수준’ 24.0% ‘1,450원 수준’ 34.0%, ‘1,500원 수준’ 20.0%, ‘1,500원 초과’ 12.0% 로 집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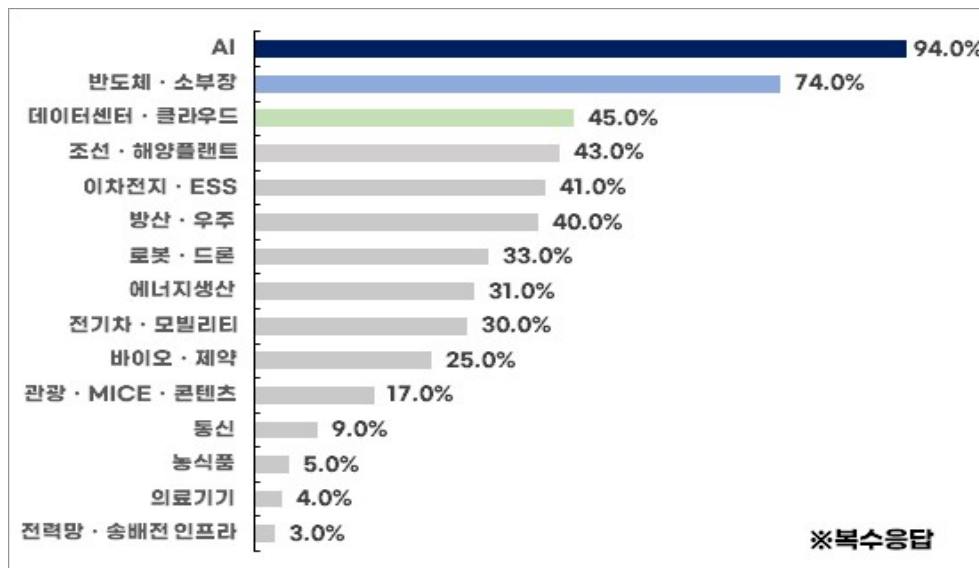
〈적정환율 및 2026년 환율전망〉



5. 유망 산업 전망

- 응답자 94.0%가 2026년에도 ‘AI’가 가장 유망할 것으로 전망
 - 정부가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통한 AI산업 발전 의지를 표명한 만큼 2026년에도 가장 유망한 산업일 것으로 전망
 - 이어 ‘반도체 · 소부장’(74.0%), ‘데이터센터 · 클라우드’(45.0%), ‘조선 · 해양플랜트’(43.0%), ‘이차전지 · ESS’(41.0%), ‘방산 · 우주’(40.0%), ‘로봇 · 드론’(33.0%), ‘에너지생산’(31.0%), ‘전기차 · 모빌리티’(30.0%), ‘바이오 · 제약’(25.0%) 등의 순

〈2026년 유망 산업 전망〉



나. 2026년 부산 경제/경영 전망

1. 부산지역 주요 산업별 경기전망

- 응답자 절반이상은 민간건설 위축 장기화와 전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지역 건설업 경기는 올해보다 부진할 것으로 전망
- 또한, 제조업, 도소매업, 운수업 등에서도 '경기 개선'보다 '경기 악화'를 더 많이 전망하며 지역 경제 회복에 대한 우려가 확대됨

○ 제조업

- 응답자 49.0%는 '올해와 비슷'할 것으로 전망. 악화 전망은 34.0%(소폭 악화+매우악화)에 달해 제조업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도 상존

○ 건설업

- 응답 중 절반이상은 건설업 '경기 악화'(56.0%)를 전망.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민간건설 위축 장기화와 전자재 가격 상승 등의 요인 때문으로 분석됨

○ 운수업

- 응답자 58.0%는 '올해와 비슷'할 것으로 전망. 다만 보호무역 기조 확산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'악화' 전망(23.0%)도 혼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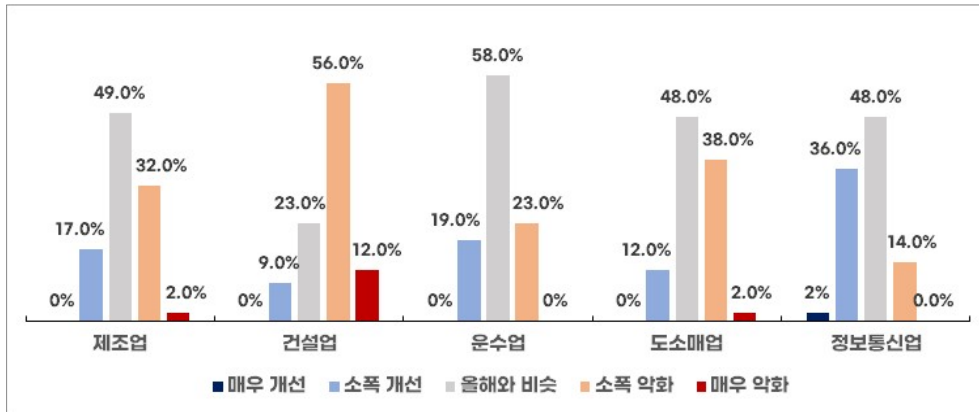
○ 도소매업

- 응답자 58.0%는 '올해와 비슷'할 것으로 전망. 한편, 환율 상승에 의한 고물가 문제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소비부진의 영향으로 도소매업 '악화' 전망도 40.0%(소폭악화+매우악화)로 집계

○ 정보통신업

- 응답 중 38.0%(매우개선+소폭개선)는 AI 및 데이터기술 수요 증가로 관련 산업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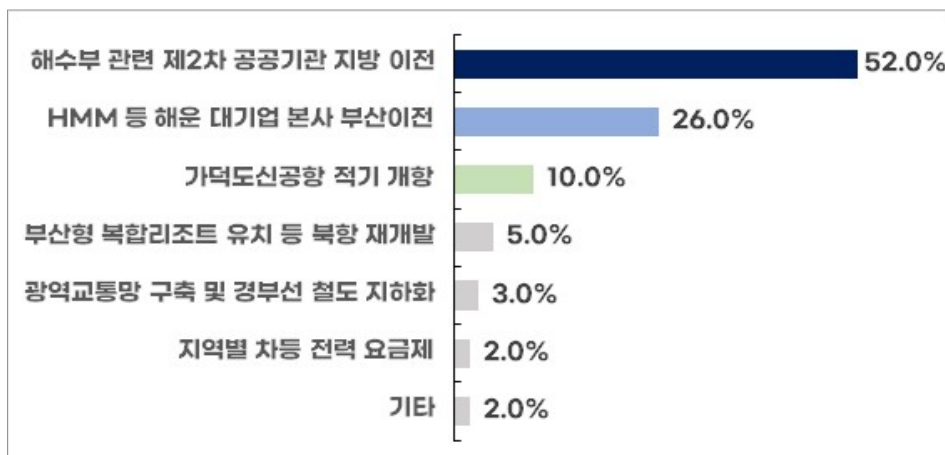
〈부산지역 2026년 주요 산업별 경기전망〉



2. 부산지역 주요 경제현안

- ‘해수부 관련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’(52.0%)이 지역의 가장 큰 화두
 - 해양수산부의 부산 개청과 연계하여 해양산업 진흥 관련기관 등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지역의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보임
 - 또한 응답자 26.0%가 ‘해운 대기업 본사 부산이전’를 꼽음. 이는, SK 해운, H-Line해운 등 해운기업의 본사 부산이전이 현실화되면서 부산의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
 - 이어 ‘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’(10.0%), ‘부산형 복합리조트 유치 등 복합항 재개발’(5.0%) 등을 부산지역 주요 경제현안으로 꼽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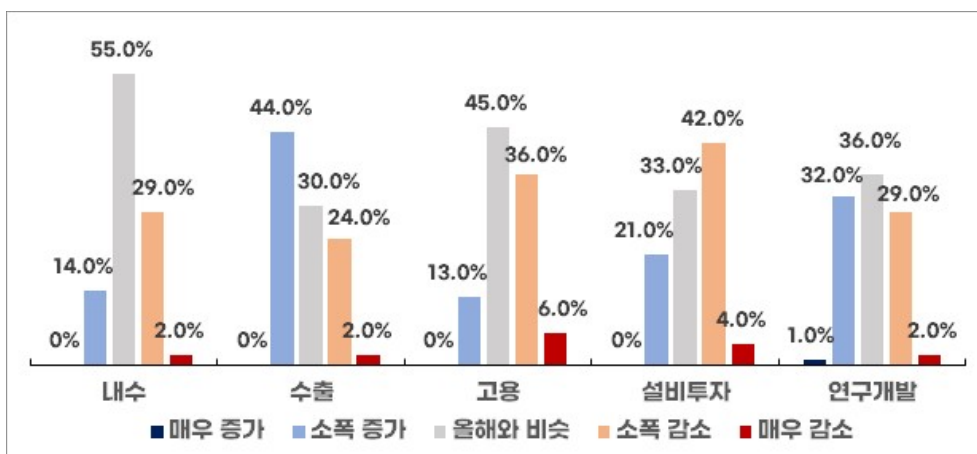
〈부산지역 주요 경제현안〉



3. 경영환경 전망

- 지역 내수환경은 ‘올해와 비슷’(55.0%)한 수준일 것이라 전망
 - 이어 ‘내수감소’(31.0%, 소폭감소+매우감소), ‘내수증가’(14.0%) 순으로 집계
- 지역 오피니언 리더 44.0%는 2026년 수출이 ‘증가’할 것으로 전망
 - 글로벌 관세정책 불확실성 완화와 수출지역 다변화 등으로 자동차·부품, 조선·기자재 등 지역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
- 응답자 45.0%는 고용이 ‘올해와 비슷’할 것으로 전망
 - 다만, 인건비 절감을 위한 공정 자동화와 내수부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업종에서 구조조정, AI 기술 활용에 의한 인력 대체 등으로 고용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며 ‘고용감소’ 전망도 42.0%(소폭감소+매우감소)로 집계
- 설비투자는 ‘감소’ 전망이 46.0%(소폭감소+매우감소)로 가장 큰 비중 차지
 - 지역 오피니언 리더는 불투명한 경기회복에 따른 설비투자 연기로 보수적 투자기조가 우세할 것으로 전망
- 연구개발은 ‘올해와 비슷’(36.0%)할 것으로 전망
 - 한편,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예산 확대, 첨단산업 발전 전략 등으로 ‘연구개발 증가’ 전망도 33.0%(매우증가+소폭증가)를 차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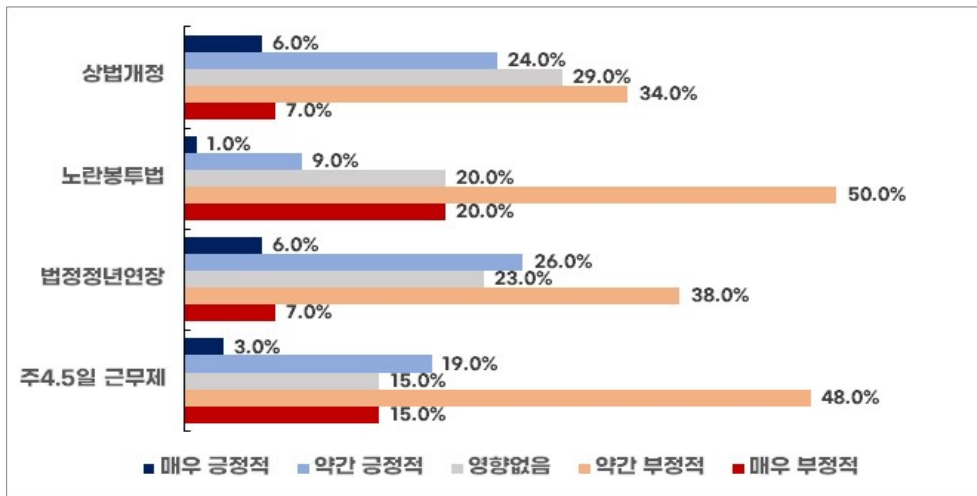
<부산지역 2026년 경영환경 전망>



4. 주요 규제 법안에 따른 지역기업 파급효과

- 상법개정에 대해, 응답자 41.0%(매우 부정적+약간 부정적)가 지역기업에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
 - 상법개정으로 인한 규제강화가 지역 내 소극적인 기업공개 경향을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 상존
 - 이어 ‘긍정적’(매우 긍정적+약간 긍정적) 30.0% ‘영향없음’ 29.0%로 응답
- 노란봉투법에 대해, 지역 오피니언 리더 70.0%(매우 부정적+약간 부정적)가 지역기업에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
 - 특히 노란봉투법은, 사업재편, 구조조정 등 경영상 결정사항에 대해서도 노조와 협의 의무가 주어지고, 협의 결렬시 파업이 가능해, 경영자의 판단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경영환경에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
 - 이어, ‘영향없음’ 20.0%, ‘약간 긍정적’ 9.0%, ‘매우 긍정적’ 1.0%의 순
- 응답자 45.0%(매우 부정적+약간 부정적)는 법정 정년연장이 기업에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
 - 이는, 퇴직 후 재고용과 같은 유연한 채용방식 선호 기조와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이 기업의 경영 리스크로서 인식한 것으로 분석됨
 - 반면, 인력난 완화, 기술 노하우 전수, 안정적 조직문화 형성 등의 요인으로 ‘긍정적’(매우 긍정적+약간 긍정적)도 32.0%로 집계
- 주4.5일 근무제에 대해, 응답 중 63.0%(매우 부정적+약간 부정적)가 지역기업에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
 - 특히,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, 인건비 증가 등이 지역 제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
 - 이어, ‘약간 긍정적’ 19.0%, ‘영향없음’ 15.0%, ‘매우 긍정적’ 3.0%의 순으로 응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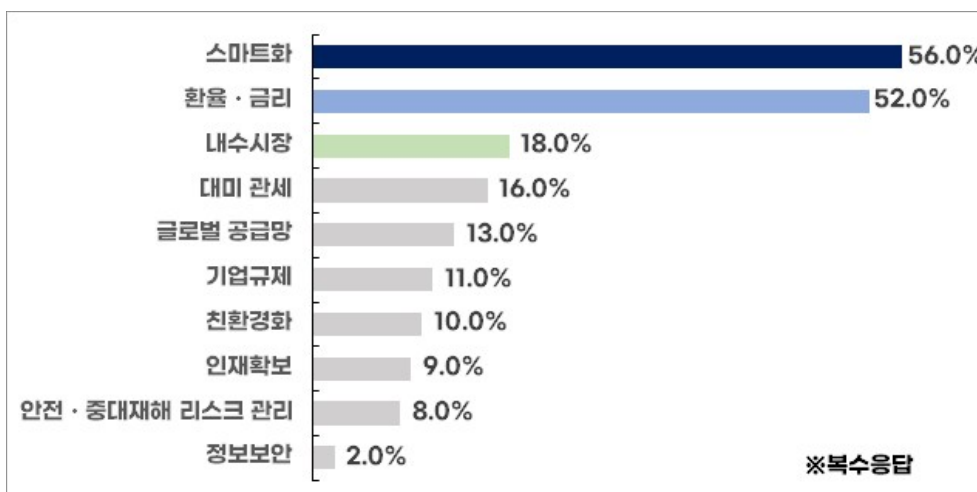
<주요 규제 법안별 지역기업 파급효과 전망>



5. 부산지역 주요 경영 키워드

- 지역 오피니언 리더 절반이상이 AI, 디지털전환, 클라우드 활용 등의 ‘스마트화’ (56.0%)를 꼽음
 - 특히, AX나 데이터분석이 지역기업의 기술혁신과 인력 수급난 개선 등 경쟁력 강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
 - 이어, ‘환율 및 금리’(52.0%), ‘내수시장’(18.0%), ‘대미 관세’(16.0%), ‘글로벌 공급망’(13.0%), ‘기업규제’(11.0%), ‘친환경화’(10.0%), ‘인재 확보’(9.0%), ‘안전 및 중대재해 리스크 관리’(8.0%), ‘정보보안’(2.0%) 등의 순

<부산지역 주요 경영 키워드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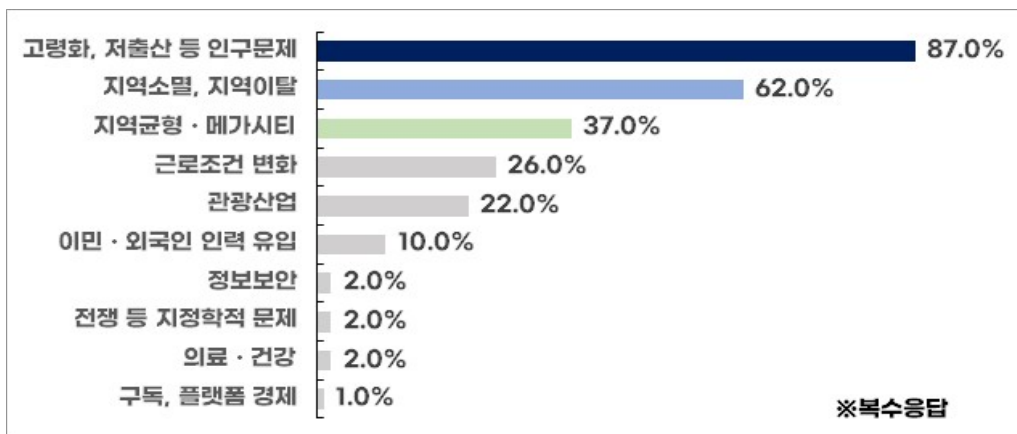
II 사회 이슈 · 트렌드

가. 오피니언 리더가 보는 2026년 부산지역 사회

1. 부산지역 주요 사회 이슈

- 응답자 87.0%는 ‘고령화, 저출산 등 인구문제’를 주요 이슈로 꼽음
 - 이는, 부산의 초고령사회 진입과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출산율 등 지역의 인구구조 개선 필요가 응답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
 - 이어 ‘지역소멸, 지역이탈’(62.0%), ‘지역균형 · 메가시티’(37.0%), ‘근로조건 변화’(26.0%), ‘관광산업’(22.0%), ‘이민 · 외국인 인력 유입’(10.0%) 등의 순으로 응답

〈부산지역 주요 사회 이슈〉



2. 부산지역 주요 사회지표 전망

○ 주택가격

- 지역 오피니언 리더는 ‘주택가격 상승’(44.0%, 매우증가+소폭증가)을 가장 많이 전망. 이는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전세난, 시중 유동성 확대 등 복합요인으로 인해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강해짐에 따른 것으로 해석됨
- 이어 ‘올해와 비슷’(39.0%), ‘주택가격 감소’(17.0%, 매우감소+소폭감소) 순으로 집계

○ 소비자 물가

- 응답자 74.0%가 ‘소비자 물가 상승’(매우증가+소폭증가)을 전망. 특히, 고환율로 인한 수입품 가격상승이 소비자물가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

○ 실업률

- ‘실업률 증가’(매우증가+소폭증가)는 47.0%로 집계. 경기둔화, 생산 자동화 등으로 인한 일자리 부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됨
- 이어, ‘올해와 비슷’(40.0%), ‘실업률 감소’(13.0%, 매우감소+소폭감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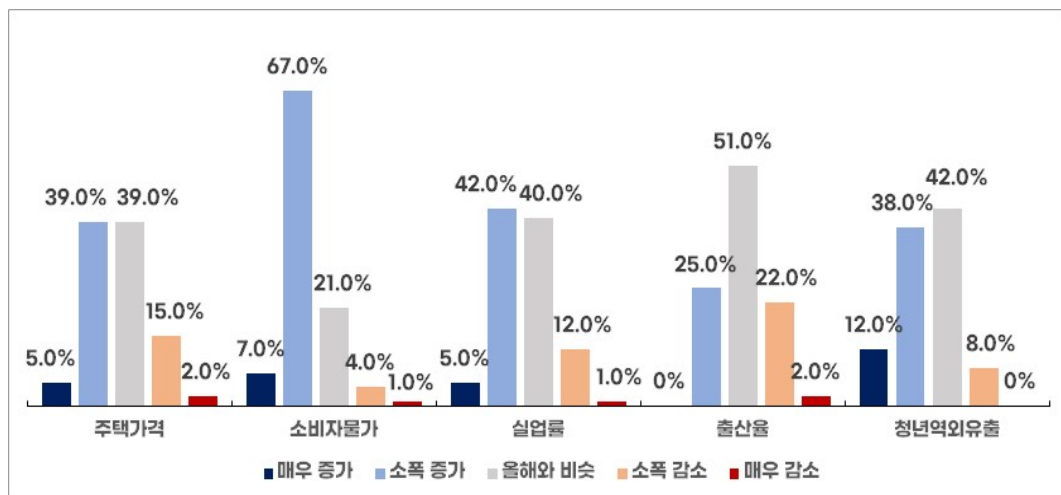
○ 출산율

- 응답 중 절반이상 ‘올해와 비슷’(51.0%)할 것으로 전망. 한편, ‘출산율 상승’에 대한 응답도 25.0%로 나타나면서 출산율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상존

○ 청년역외유출

- 응답자 50.0%가 ‘청년역외유출 증가’(매우증가+소폭증가) 전망
- 특히,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해운 대기업 부산 유치와 같이 지역 경제 재도약과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 에 대한 목소리 확대

<부산지역 주요 사회지표 전망>



3. 주요 품목별 소비전망

○ 여행상품(항공, 숙박 등)

- 응답자 50.0%가 여행상품 소비 '증가'(50.0%) 전망. 이는 부산지역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돌파, 의료관광 호조 등 관광·서비스산업 활성화 추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. 이어, '올해와 비슷'(42.0%), '감소' (8.0%)의 순

○ 디지털 콘텐츠(게임, 영화 등)

- 지역 오피니언 리더 51.0%가 '올해와 비슷'으로 응답. 이어 글로벌 OTT·플랫폼을 통한 국내 게임·문화 콘텐츠 흥행 기대감으로 디지털 콘텐츠 소비 '증가' 전망 또한 40.0%를 차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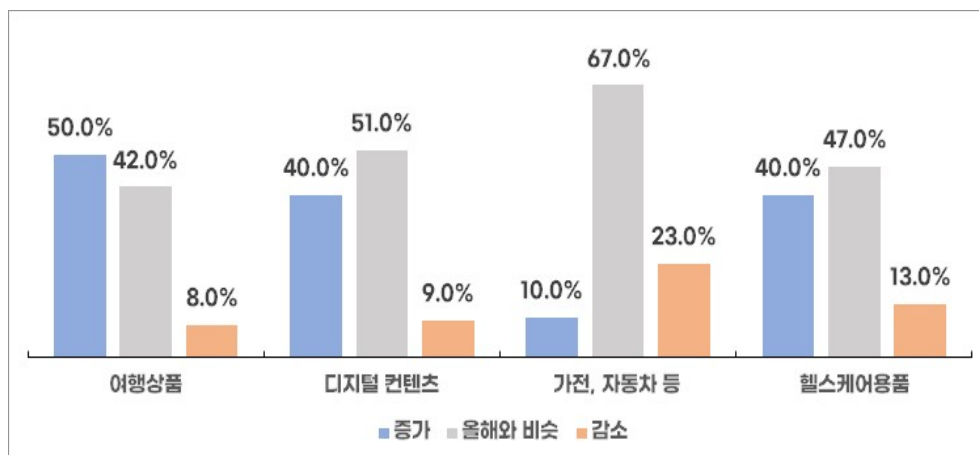
○ 가전, 자동차

- 응답자 67.0%가 '올해와 비슷'으로 전망. 한편, 소비 '증가'(10.0%) 전망보다 '감소'(23.0%) 전망이 13.0%p 높게 나타나면서 관련 제품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

○ 헬스케어용품

- 응답자 47.0%가 '올해와 비슷'으로 전망. 이어 실버산업 확대, 건강 기능식품 소비증가 등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 증가로 관련 상품 소비 '증가' 전망이 40.0%로 집계

<주요 품목별 소비전망>



III 정책 이슈 · 트렌드

가. 2026년 정부 정책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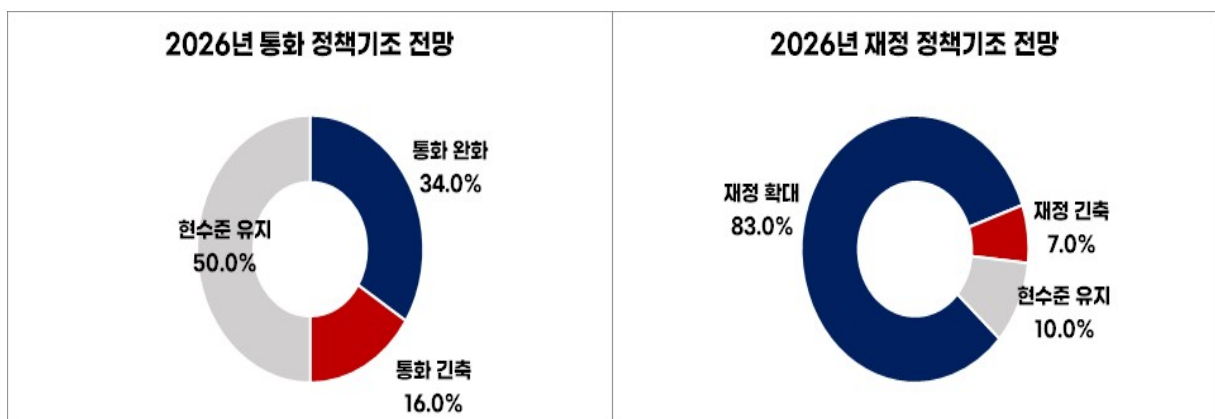
1. 통화 정책기조

- 응답자 절반은 2026년에도 ‘현수준 통화정책 유지’(50.0%)를 전망
 - 2026년 통화정책에 대해 지역 오피니언 리더는 고환율, 인플레이션 우려, 부동산PF·가계부채 등 복합요인으로 인해 2025년 통화정책 기조와 큰 차이 없을 것으로 전망
 - 이어 ‘통화 완화’(34.0%), ‘통화 긴축’(16.0%)의 순으로 집계

2. 재정 정책기조

- 지역 오피니언 리더 83.0%가 ‘재정을 확대’할 것으로 전망
 - 이는, 정부·지자체의 복지 예산 증가와 AI 산업·인프라 투자 확대로 2025년보다 재정 정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임
 - 이어 ‘현수준 유지’(10.0%), ‘재정 긴축’(7.0%)의 순으로 집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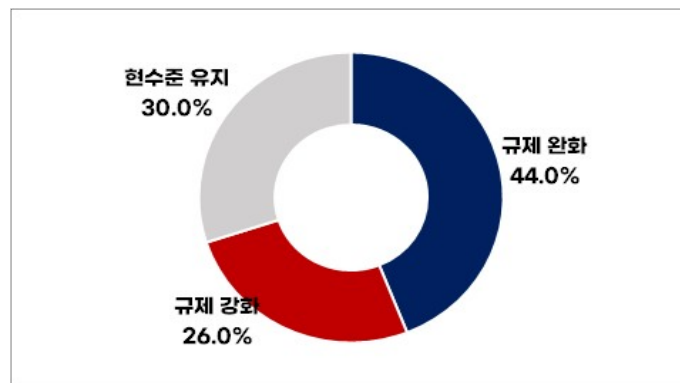
<2026년 통화 및 재정 정책기조 전망>



3. 기업규제 정책기조

- 기업규제에 대해서는, 응답 44.0%가 ‘규제 완화’를 전망
 - 이어 ‘현수준 유지’(30.0%), ‘규제 강화’(26.0%)의 순으로 집계
 - 기업애로해소, 사업전편지원 등의 親기업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나, 상법개정, 노란봉투법과 같은 기업규제 정책에 대한 우려도 있어, 지역 오피니언 리더 간 상반된 의견 상존

〈2026년 기업규제 정책기조 전망〉



4. 지역균형발전

- 지역 오피니언 리더 65.0%가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‘강화’ 될 것으로 전망
 - 특히,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,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돋보이면서 지역 내 정책 기대감이 큰 것으로 보임
 - 이어 ‘현수준 유지’(19.0%), ‘약화’(16.0%)의 순으로 집계

〈2026년 지역균형발전 정책 전망〉

